

꿈에 대한 동서의학적 인식

강동윤 · 김병수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Recognition of Dream i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Dong Yun Kang, Byung Soo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The dream is a well-known experience in the routine life. It is the image and thought being occurred during the sleep, and the complex reaction of our mental world to the event of everyday. In particular, there are so many opinions of the reason why people have a dream and this thesis is telling about the physical and pathological changes in the human as one of that various opinions. The aspects of this thesis are often founded in the diverse texts of oriental Medicine, including the Internal Classics(內經), and there were some cases that regarded the dream as diagnostic object and put to clinical uses. These attempts were not only tried out by particular orient thoght, also the ancient Greeks thought that the dream would represent important informations about the health. But, these ideas have been treated lightly by the impacts of the western medicine since the modern age. Straightforwardly, before the psycho-analytics was not development, most of the doctors and scientists regarded the dream as things like dregs of mind. The central operating bodies of the dream are the Spirit(神) and Hon and Beak(魂魄), and the Spirit(神) is more essential part between the two.

Key words : dream, psycho-analytics, Internal Classics(內經), spirit(神), hon and beak(魂魄)

서 론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꾸는 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꿈에 관심을 가져 왔고 때로는 큰 의미를 두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은 꿈 자체보다는 자신이 꾸는 꿈의 내용과 그 꿈이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에 관해서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꿈을 통한 심리적인 분석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됨으로써 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꿈에 관한 연구는 서양의 전유물이다시피 하였다.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시도는 수면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193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여, 현대 서양의 다양한 실험과 연구들에서 인체의 생리적·심리적·병리적 변화가 꿈으로 표상되어 나온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속속 밝혀져,

현재는 꿈에 의학적 메시지와 건강 문제의 해결책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잠을 자는 사이에 일어나는 생각과 이미지로, 외부세계의 사건들에 대한 복합적인 내부의 반응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꿈은 정신활동의 산물이다. 정신에 관한 문제라면 그 이론적인 체계와 역사성에 근거, 한의학에서의 인식이 월등하고 보다 완전하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저자는 한의학에서 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각종 문헌을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 한의학에서는 비록 체계적인 연구와 논술은 없지만, 꿈의 본질·특징·의의·형성원인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고, 각종 꿈과 관련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되어 왔던 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질병 진단의 유의미한 근거로 재고하고자 본 논문을 제출한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06/01 · 수정 : 2005/06/24 · 채택 : 2005/07/15

1) 설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재, 2003, p. 49.

본 론

1. 꿈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

꿈에 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체코 슬로바키아 태생의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이다. 그에 의하면 꿈은 어디까지나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풀이된다²⁾.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은 정신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알 수 있는 지름이다”고 주장하였고, 정신이 혼돈과 충동과 초도덕의 영역인 잠재의식 ‘이드(id)’와, 인간의 사고에 질서와 이성을 불어넣는 의식 있는 정신인 ‘자아(ego)’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는 우리의 양심을 ‘초자아(super ego)’라 일컬었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자아가 우리의 정신 속에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고, 이드의 욕망을 억누른다. 그러나 잠을 자는 동안 자아는 그 통제력이 느슨해지고, 이드가 꿈을 통해 제 욕망을 일린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욕망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요소를 자아가 검열하여 삭제하고 난 뒤 상징의 형태를 빌어 꿈을 꾸는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³⁾. 꿈을 욕망의 해소라고 본 프로이트의 가설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욕망의 대표적인 얼굴을 성욕이라고 본 점이 나 수수께끼 같은 꿈을 상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무리가 있다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Carl Jung, 1875~1961)은 1913년 프로이트와 결별할 때까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연구를 하였다. 이후 융은 분석심리학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심리학 분야를 개척하였는데, 이것은 신화와 신비주의·종교·형이상학·상징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융은 일반적인 심리학적 주제들이 지구상에 흩어진 여러 세계의 문화와 시대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인간은 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⁵⁾. 융은 꿈을 상징적인 것으로 본 점에서 프로이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상징의 해석을 성욕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원초적 본능’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를 ‘집단무의식’이라고 불렀다⁶⁾. 융은 검열관과 같은 초자아 대신에 집단무의식의 존재를 믿었다. 융에게 집단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영역이며, 세상 모든 이들이 그 속에 잠겨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심리적 연못이었다. 융은 집단무의식에서 유래하는 꿈에 ‘웅대한 꿈(grand dream)’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종족의 거대한 역사적 저장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융은 꿈이 의식과 영성과 사랑의 보다 높은 차원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집단 무의식이 인간 정신에 내재

하는 원시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원형(archetype)’이라고 불렀다. 원형을 이해하면 꿈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 의미의 꿈과 개인적인 꿈을 구분 지을 수 있다⁷⁾. 이런 점에서 융은 프로이트의 억지스런 편협에서 벗어나 일반 진전된 꿈 이론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현대 꿈 해석의 대부분은 여전히 프로이트와 융의 선구적인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게슈탈트 요법(Gestalt therapy, 형태심리치료)의 창시자인 미국의 정신병리학자 프리츠 펄즈(Fritz Perls, 1893~1970)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펄즈는 상징이 자신의 고유한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등장인물은 깨어 있을 때는 인정할 수 없는 자아의 여러 측면을 상징하며, 꿈은 감정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해결해야 할 일을 표상한다고 여겼다. 꿈의 상징은 꿈꾸는 사람 개개인 정신의 사적 표현수단이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⁹⁾.

스위스의 정신병리학자 메다르트 보스(Medard Boss, 1903~)는, 꿈이 상징적인 차원보다는 오히려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보스에게 있어서 인간이 언어낼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꿈은 단지 꿈꾸는 사람의 믿음과 행동과 인간관계를 드러낼 뿐이었다¹⁰⁾.

몇몇 심리학자들은 잠을 억압된 감정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여긴다. 문제는 꿈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며, 방해가 되는 정신적인 혼란이 없이도 분노나 욕구불만과 같은 감정들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인성 질병이라는 개념 역시도 고통이나 두통, 위궤양과 같은 수많은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꿈을 통해서 감정적인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은 분노나 슬픔, 질투와 같은 억압된 감정이 육체적인 증상으로 발현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¹¹⁾.

현대 심리학자들 중에는 그간 학계에서 정설처럼 여겨온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인간은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지 활동을 계속한다는 학설이 입증되면서 꿈은 억압된 욕망에 대한 허위적이고 왜곡된 이미지 현상일 뿐이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고전화한 것이다.

필립 짐바르도 미 스탠포드대 교수 등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서 “꿈은 다목적이면서도 고도의 신체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인간은 꿈에서도 현실과 똑같이 복잡한 사고와 판단을 하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른바 ‘꿈의 심리학’이다. 또, 미카엘 쉬레틀 독일 만하임 정신연구소 소장은 임상실험을 통해 인간의 지각활동이 현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꿈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

2)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133.

3) 쉐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03, pp. 49-50.

4)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133.

5) 쉐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03, p. 50.

6)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133.

7) 쉐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03, pp. 49-50.

8)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p. 133-134.

9)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52.

10)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52.

11)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21.

였다. 꿈은 결코 현실과 유리되거나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꿈이 현실에서 뒤떨어진 심리적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치료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더불어 쉬레들은 꿈을 꾸는 개개인이 그 어떤 전문가보다 자신의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해몽가라고 단언하였다. 현실 경험을 가장 잘 아는 자신만이 꿈의 진정한 의미와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논리다.

2. 꿈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이론

꿈을 해석한다는 생각에 매력을 덜 느낀 몇몇 심리학자들은 뇌가 일정한 종류의 이야기를 엮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임의의 감각정보를 수면을 취하는 사이에 분출해낸다는 생각을 선호하였다. 뇌는 꿈 이야기의 편집에 꿈꾸는 사람의 희망과 두려움을 이용한다. 이와 비슷한 이론으로,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낮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나 사고나 활동을 조정하고 그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분류하여 기억에 저장한다는 이론이 있다. 말하자면 이때의 꿈은 기억력의 보조기구인 셈이다¹²⁾. 기억과 수면과의 관계는 수십 년 간 연구되어 왔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경우 수면부족이 기억력, 특히 최근에 습득한 기술에 대한 기억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을 꾸는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을 방해하면 기억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쥐의 수면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졌다. 미국 록펠러대 분자생물학과 시다르터 리베로 박사는 쥐의 REM 수면을 관찰한 결과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zif-268)가 REM 수면 동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쥐는 자기 직전에 경험한 새로운 상황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의 활성 양상을 수면 중에 반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벨기에 리그 대학(the University of Liege)의 피에르 마크(Pierre Maquet)교수의 연구팀은 양전자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을 이용하여 두뇌 활동의 3차원적 영상을 얻었다. 연구원들은 일곱 명의 연구대상자가 컴퓨터 자판을 일정한 순서로 눌러야 수행할 수 있는 일을 배우는 동안 PET를 수행하였다. 그러자 뇌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빛을 내었다. REM 수면동안 이러한 부분중 일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이며 브뤼셀 리브르 대학(the University Libre de Bruxelles)의 액슬 클레르망(Axel Cleeremans)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재생이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인 로버트 스틱골드(Robert Stickgold) 교수는 재활성화가 뇌사진에서 선명히 나타나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그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인체가 수면 중에 기억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는 이론도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꿈은 나날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보관하는 수단이 된다¹³⁾. 인간의 뇌는

컴퓨터에 비할 수 없이 고성능이어서 프로그램의 수가 수십 만 개 내지 수백 만개에 이르며 매일 엄청난 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고치고 처리하는 시간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 눈동자가 돌아가는 시간, 즉 꿈을 꾸는 시간은 그 날 하루 동안이나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영사기처럼 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 없는 옛날 정보는 멀리 떨어진 기억저장소로 보내고 새로운 정보는 언제라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도실에 차곡차곡 쌓여놓는 시간 즉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시간인 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수백 만개에 이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업데이트를 시키지 못한다. 컴퓨터에서 온라인의 전원을 일단 끊어놓고 프로그램을 고치듯이 인간의 뇌도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문, 즉, 五官(시각, 청각 등)을 닫아 놓은 수면상태에서만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다¹⁴⁾.

3. 꿈에 관한 동양학적 이론

王充의 『論衡·論死』의 기술에 근거하면, 兩漢시대에는 “사람의 꿈이란 귀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짐치는 사람들은 여겼다.”고 한다. 사람이 잠이 들면 정신은 육체를 떠나 움직이게 되며, 혹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사물과 접촉하게 되어 잠을 자는 사람이 꿈에서 정신이 만나는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¹⁵⁾.

魏晉시대에 이르러서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심주의적인 형체와 정신간의 관계를 원용하여 해몽을 논증하였다. 대표적으로 “꿈이란 형상이며, 精氣의 움직임이다. 魂魄이 육신을 떠나 정신이 왕래하는 것이다. 陰陽이 감응되어 길흉의 징험이 나타난다. 꿈은 그 사람에게 과실을 예견할 수 있도록 말해준다. … 꿈이란 알린다는 것인데, 그 형상을 알림을 말한다. … 영혼이 나와서 노니며 육신은 홀로 존재하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는 바람에 육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천신의 계시를 받아 다시 사람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논술이 있는데, 이는 꿈을 精氣와 魂魄의 활동으로 본 것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꿈의 발생이 꿈을 꾸는 사람의 육체와 그 기관과는 무관하게 완전히 외부세계의 어떤 정신적 실체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았다. 둘째, 꿈의 주체가 마치 육체를 갖고 있는 실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육체에 들어 있으며, 또 그 육체를 떠날 수 있는 영혼, 즉 일종의 순수한 주관적 정신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꿈의 내용을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생활 경험의 어떤 환상적인 반영으로 인식하지 않고, 신령이 미래의 길흉을 예고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¹⁶⁾.

解夢書나 占夢家들의 논증 이외에도 經學家들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내린 해석이 있다. 해몽이란 춘추시대 이전에는 정부의 신앙으로 이른바 ‘삼몽법’과 ‘해몽’관 등과 같은 것은 모두 『周禮

12)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52.

13)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 52.

14)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년 7월호, pp. 134-135.

15)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pp. 56-57.

16)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pp. 57-59.

』에 보인다. 따라서 역대 유학자들 중에서 『周禮』에 주석을 다는 사람들은 모두 해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만 하였다. 또한 『周禮』는 儒家의 경전 중 하나이므로 역대의 유학자들 중 해몽이란 것을 단호하게 부정하였던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¹⁷⁾. 꿈은 정신의 작용이고 사람의 정신은 천지의 음양과 교통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明代의 陳士元은 해몽에 관한 철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다. 陳士元 역시 ‘神魂外游’라는 전통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논증에 있어서는 독특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夢占逸旨·眞宰』에서 “魂은 올 것을 알 수 있고魄은 지나간 것을 감출 수가 있다. 사람이 낮에 깨어 있게 되면魂은 눈에서 빛나게 되고, 밤에 잠을 잘 때에는魄이 肝에 기숙을 하게 된다.魄이 눈에서 빛나기 때문에 능히 볼 수 있는 것이며,魄이 肝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꿈이란 정신이 노니는 것이며 올 것을 알게 해주는 거울이다.”라고 하였다¹⁸⁾. 이는 이전에 魂魄이 육신을 떠난다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魂은 육신을 떠나지만魄은 오히려 육신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魂은 하늘로 돌아가고魄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상기하여 魂魄이 모두 육신을 떠난다면 수변과 사방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陳士元의 이론은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夢占逸旨·晝夜』에서 꿈은 정신에 의한 천인감응의 한 현상임을 말하였다. “사람이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깨어 활동하고 잠을 자는 것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깨어서 활동하는 것은 행위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요,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는 것은 형체의 정지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의 기운은 제멋대로 바깥으로 나가 노닐며, 천지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흐른다. 至虛한 상태로 돌아가고 至靈에 모이게 되면 빛나는 혼은 시들지 않고 정신은 가벼워 가라앉지 않게 되니, 어찌 잠을 자고 활동하며 깨어 있고 꿈을 꾸는 것들과 함께 움직이고 정지하게 되겠는가! 고로 형체는 비록 잠이 들었으나 정신은 잠들지 않고, 혹은 감추거나 혹은 고요하게 머무르며, 혹은 서로 통하거나 혹은 서로 접촉하기도 한다. 정신이 접촉하거나 감추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거나 혹은 꾸지 않게 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¹⁹⁾.

4. 꿈에 관한 한의학적 이론

한의학에서 꿈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역대의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靈樞·淫邪發夢』에서는 “正邪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습하여 정해진 거처가 없는데 도리어 臟腑에 침입하여 거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營衛와 함께 행하여 魂魄과 함께 날아다녀 사람으로 하여금 누워도 편안하지 못하게 해서 꿈을 잘 꾸게 된다.”라 하여 魂魄이 正邪와 함께 신체내부를 헤매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작된 꿈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이며, 明·張介賓과 淸·沈金鰲의 논술

이 비교적 체계적이다.

張介賓은 『類經·疾病類·夢寐』²⁰⁾에서 “대저 五行의 調和는 본래 무궁한 것인데 꿈은 心에서 만들어지며 그 근원은 하나이다. 대개 心은 君主之官이고 神의 집이다. 神이 心에서 동하면 五臟의 神이 모두 그에 응한다. 그러므로 心이 이르는 바가 곧 神이며 神이 이르는 바가 곧 心이다. 다만, 心이 神에 이끌려서 꿈을 꾸는 것은 감정이 붙은 바가 있어야 하므로 心의 장애이며, 神이 心에 이끌려 꿈을 꾸는 것은 형체가 무형보다 앞설 수 있으니 神의 신령함이다. 대저 心의 신령함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므로 夢象의 기이함 역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고, 沈金鰲는 『雜病原流犀燭·不寐多寐源流』²¹⁾에서 “꿈이라는 것은 神과 魂魄의 병이다. 心은 神을 藏한다. 가운데는 비어 있으며 지름이 몇 촛에 불과하나 神明이 그곳에 거처하므로 心은 神明의 집이며 神은 곧 精氣가 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靈樞』에 이르기를 ‘兩精이 相搏하는 것을 神이라 이르고 神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魂이라 이르며 精과 더불어 출입하는 것을 魄이라 이르니 이 神·魂·魄, 3가지는 확연하게 서로 엮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또, 日·丹波元堅이 인용한 『吳醫匯講·日講雜紀』²²⁾에는 “『內經』에 비록 夢事를 臟腑와 陰陽으로 나누어 놓기는 하였지만, 핵심은 모두 心, 肝의 두 臟이 위주가 된다. 왜인가? 神魂이 안정되고서도 꿈자리가 顛倒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논술을 통해 꿈은 心神과 魂魄의 활동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心神과 魂魄 중에 꿈의 여부를 좌우하는 보다 근원적인 주체는 心神이라고 볼 수 있다. 『靈樞·口問』에 “슬퍼하거나 근심하면 心이 동하고 心이 동하면 五臟六腑가 모두 흔들린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心神과 魂魄의 선후관계를 우선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靈樞·本神』에서 “神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魂이라 이르며 精과 더불어 출입하는 것을 魄이라 한다”라고 한 것과 『靈樞·大惑論』에서 “神이 고달프면 魂魄이 흩어지고 志意가 어지러워진다.”라고 한 것 등에서 魂魄은 心神을 좌우에서 輔弼하는 것이며, 心神이 정신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꿈이 비록 魂魄이 들떠 다니는 것과 유관하기는 하지만 결국 心神不安의 한 표현일 뿐이다. 이에 대해 淸·喻昌은 『醫門法律』의 『申明內經法律·一申治傷寒病遇壯盛人發汗過輕之律』에서 『靈樞·口問』의 한 문장을 주해하며 “心은 五臟六腑의 주인이며 魂魄을 총괄하며 志意를 겸하므로 근심(憂)이 心에서 동하면 肺가 응하고 생각(思)이 心에서 동하면 脾가 응하고 노여움(怒)이 心에서 동하면 肝이 응하고 두려움(恐)이 心에서 동하면 腎이 응하니 이것은 五志가 오직 心이 부리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²³⁾.”라고 말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淸·唐容川은 『血證論·臥寐』에서 “魂魄을 주관하는 것은 神이다. 그러므로 神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꿈을 치료하는 要訣이다²⁴⁾.”하여 心神과 魂魄의 主副관계를 확실히 말하였다. 淸·沈金鰲 역시 “대

17)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p. 59.
18)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p. 62.
19)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p. 63.

20)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78.
21)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91.
22) 丹波元堅, 雜病廣要,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622.
23) 喻昌, 醫門法律,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 50.
24) 唐宗海,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6, p. 147.

저 꿈이라는 것은, 역시 神이 불안하다는 하나의 증험일 뿐이다²⁵⁾.”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 “옛날의 真人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지 않았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은 神이 온전하기 때문이다²⁶⁾.”라고 한 것 역시 心神이 꿈을 꾸는 주체임을 傍證하는 것이다.

즉, 한의학에서는 心神이 내, 외부적으로 각종의 감응을 일으켜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종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5. 기타

앞서 꿈에 대한 동양학적 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고대 문화에서는 잠을 영혼이 정령이나 신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몸을 떠나는 시간, 혹은 정령이나 신이나 귀신이 몸을 방문하는 시간으로 간주하였다²⁷⁾.

유사 이래 인류는 졸곧 꿈의 의미를 깨는 일에 몰두해왔다. 괴상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상징을 담고 있음이 분명한 꿈에 매료된 가운데, 현재의 삶에 대한 통찰을 얻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목적에서 정열적으로 꿈의 의미를 추적하였다.

고대 유대인들은 해석 과정에서 꿈을 꾸는 이의 생활환경을 꿈의 내용 못지 않게 중시함으로써 현대적인 꿈 이론을 앞질러 보여주었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꿈 해석의 전문가로 여겨 존중하였다. 이집트인들도 유대인의 꿈 해석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중왕국(기원전 2040~1786)시대에 나름대로 꿈 해석의 체계를 세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체스트비티의 파피루스의 기록을 보아 그들의 방법론은 오늘날의 꿈 지침서 속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꿈이 실제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행복감을 분명히 드러내는 꿈의 재앙을, 최악의 악몽은 보다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꿈에 등장하는 각각의 상징의 의미는 그 상징어와 운이 같은 단어를 동원함으로써, 또는 현대적인 연상법을 통해서 추적하였다. 그들은 꿈이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겼으며, 사전준비를 마친 뒤에 그들은 신전에서 잠을 청했고, 잠에서 깨어나면 신전의 성직자에게 자신이 꾸는 꿈의 해석을 의뢰하였다.

고대 그리스인은 이집트인의 방법을 폭넓게 차용하여, 꿈의 신탁소로 쓰고자 3백 개가 넘는 성소를 지었다. 기원전 1000년에 아카드어로 기술한 메소포타미아의 영웅이자 왕에 관한 화려한 이야기도 온통 꿈에 대한 설명인데, 상당 부분이 위험이나 슬기에 대한 신성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원전 4세기에 저술 활동을 한 플라톤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이 비교적 덜해서, 그는 신들이 만드는 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수면 중에 모습을 드러내는 탈법적이며 야만스러운 야수성의 산물’이며, 또 ‘꿈이란 순전히 감각상의 요인에 촉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덕망 높은 사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플라톤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2천 년이나 앞서서

예시한 한편,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꿈이란 순전히 감각상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20세기 과학적 합리주의의 이론을 앞서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주장과 무관하게 일반인 사이에서는 꿈의 예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으며, 로마사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전해진다. 이런 주장과는 무관하게 일반인 사이에서는 꿈의 예언능력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기원전 2세기에 소피스트학과 철학자 아르테미도루스는 옛 지식을 취합하여 “오네이로크리타카(Oneirocritica)”라는 다섯 권의 책을 남겼다. 그의 꿈에 대한 분석은 놀랄 정도로 현대적이였다. 꿈에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초기 기독교 시대를 관류했고, 서기 4세기에는 성 크리소스토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제롬 같은 교부들의 가르침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

신약성서의 꿈은 사도를 위시한 기독교 창시자들에게 신이 전하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었다. 미래는 신의 손바닥에 놓여 있다고 믿었기에 예언도 지나치게 장황하였다. 중세시대에는 정통 기독교 입장이 두드러져서, 꿈에 대한 해석과 예언 문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신성한 메시지가 일반 신도들한테 하달될 가능성마저 무시되었는데, 예언은 오로지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긴 탓이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꿈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꿈 해석의 욕구가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접어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15세기 이래로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발달하여 꿈의 해석이 서적을 통해 널리 유포되었다. 이들 대부분 아르테미도루스의 저술에 기초를 두었는데, 비록 내용은 소박했지만 이런 서적들의 도움으로 꿈의 해석 작업은 예언자와 성직자들로부터 일반인들의 손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18세기의 과학적 합리주의자들 역시 꿈을 경시하면서 꿈 해석은 원시적인 미신의 형태라고 여겼으나, 일반인들의 꿈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다. 나아가서 꿈은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가령 윌리엄 블레이크와 괴테 같은 몽상가들이 주도한 신낭만주의는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간 개개인과 상상의 창조력이 지닌 중요성을 새로이 부각시켰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1762~1814)나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1776~1841)같은 철학자조차 꿈이 진지한 심리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길을 닦아놓은 결과 19세기 말에 프로이트를 통해 꿈 이론에서의 혁명이 발발하였다.

이 밖에, 인도의 전통의학인 आयुर्वेद에서는 꿈의 주제를 세 가지 도샤와 관련시킨다. 계속해서 꾸어온 꿈의 형태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도샤 내 불균형의 징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꿈이 갑자기 피타 성질을 띤다면 그것은 피타 에너지가 증가된다는 의미이다. आयुर्वेद에 따르면 꿈은 낮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며, 체워지지 못한 욕망의 표현이다. 꿈의 상징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도 있다. 이 견해는 프로이트나 융, 두 사람 모두 동의하였던 부분이다²⁸⁾.

25) 沈金齋, 雜病源流犀燭,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91.

26) 許澂, 東醫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15.

27) 설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03, p. 24.

28) 설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異影, p. 24, 53.

결 론

꿈에 관한 이론 중 한의학에서 꿈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內經』이 최초이며, 『內經』에서는 『素問·脈要精微論』, 『素問·方盛衰論』, 『靈樞·淫邪發夢』 등의 諸 篇에서 陰陽學說, 藏象學說, 病因病機學說, 運氣學說 등을 근거로 꿈의 형성 원인, 병리적인 기전, 진단 및 치료상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술하였다. 이후 의학이론의 발전과 임상경험의 축적에 따라 꿈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꿈과 관련한 질병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제시되었다.

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양상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꿈의 신비를 완전히 밝히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실제적인 체험 사례들을 통해 꿈의 현실적 효용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꿈의 원인과 기능을 비롯한 보다 정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꿈의 의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더불어 현대 사회의 특성상

七情의 不調로 인한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포괄적 정신활동의 산물인 꿈의 의학적 연구와 활용은 더욱 절실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실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채. 2003.
2. 편집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잠과 꿈의 세계. 서울, 과학동아. 1986.
3.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4.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5.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6. 丹波元堅. 雜病廣要.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7. 喻昌. 醫門法律.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8. 唐宗海.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86.
9. 許浚. 東醫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